

“디자인은 경쟁력이며 우리의 미래”

일반 사람들에게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대체적으로 당황하며 선뜻 설명하기 힘들어 한다. 분명 우리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설명하하니 뭔가 쉽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디자인’이다. ‘Printing Korea’의 창간호를 맞이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들은 패션 디자이너와 액세서리 디자이너에 의해 디자인 된 상품들이다. 거리에 널려있는 상품과 회사의 광고 포스터나 홍보용 전단지들도 그래픽 디자이너에 의해 디자인되어 인쇄된 것들이다.

거리를 걷고 있는 그녀를 보자. 입고 있는 옷, 구두, 핸드백, 머리핀을 비



◆ 투룰즈 로트렉, 'Divan Japonais' 포스터, 1893

일상의 모든 것이 디자인

의 강한 경쟁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디자인’에 대해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자.

■ 디자인의 이해

요즘은 모두가 ‘디자인’속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경제활동이 ‘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기 위한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디자인’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 알아본다.

한 여자가 현란한 명동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녀가 걷고 있는 길 양 옆에 늘어서진 건물들은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 되어진 건물들이고, 그 상점들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의해 꾸며졌으며, 그 상점들의 옷과 액세서리

를 갖춘 각종 액세서리들까지, 어느 것 하나 디자이너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상품화 될 수 없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동안 ‘디자인’속에서 숨쉬고 살아간다.

■ 디자인의 의미와 역사

디자인이란 인간생활의 목적에 합치하는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을 계획하고 그를 실현하는 것, 즉 실용적이고 미적인 조형의 촉각적이며 가시적인 표현을 말한다.

본래 디자인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의장·도안을 말하며, 지시하다·표현하다·성취하다의 뜻을 지닌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지시하다(to make out)’는 의미와 상술한 명사의 두 가지 의미에

서 유래하는 ‘계획을 세운다’ 또는 ‘스케치를 한다’고 하는 세가지 의미로 대별되어 있다. 이 어원의 뜻은 모든 조형활동에 대한 계획을 의미하며 의장, 도안, 밑그림, 의도적 계획 및 설계, 구상, 착상 등의 넓은 의미의 조형계획을 의미한다.

산업혁명 직후의 디자인은 순수미술에서 획득한 미술적 요소를 산업에 응용하는 픽토리얼 디자인(pictorial design)이상으로는 이해되지 못하였으나, 19세기 부터는 기계·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량생산과 기능주의 철학에 입각한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으로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의 디자인역사는 이념의 시대였으며, 디자인의 주된 논의는 ‘미적인 것(미의 절대성)’과 기능적인 것(미의 공리성)에 대한 것으로 오늘날까지도 디자인에 있어서 중심과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가치규

범에 대한 것이다.

19세기부터 끊임없이 추구되어온 디자인은 상업기술과 예술을 합일하여 새로운 예술을 성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대 디자인은 곧 산업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 생산에서의 미의 과학으로서 이해되며,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것(과학)과 예술적인 것이 조화된 실체로서 인간의 생활에 기여하는 것이다.

■ 그래픽 디자인 의미와 이해

디자인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넓히고 보다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 디자인(visual design), 둘째는 인간생활의 발전에 필요한 제품 및 도구를 보다 다량으로, 보다 완전하게 생산하기 위한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이고, 셋째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환경 및 공간을 보다 적합하게 하기

위한 환경 디자인(environment design)이다.

세 가지의 디자인 종류 중, 본 잡지의 취지에 맞는 시각 디자인에 대해 더 심도 있게 이야기 해 보자.

시각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graphic design)이라는 용어로 더 일반화 되어 있으며, 광고 매체로서의 회화적 표현수단이나 문자,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한 것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시각전달 매체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신문·잡지의 광고, 텔레비전 CF(commercial film), 영상광고, 심지어 대형 간판과

화·대형 간판, 환경 그래픽(environment graphic)으로까지 발전하고 있고, 산업사회에서 대량생산에 의하여 촉진되는 대량전달의 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픽 디자인, 또는 시각 디자인은 대중을 조종하고, 설득하고 변형시키고, 교육시키는 감화형식을 시각적으로 창조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봉사한다는 윤리적 책임감이 그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래픽 디자인, 또는 시각 디자인은 '사회적인 예술(social art)'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순수한 의미의 그래픽 디자인

실용적 · 미적조화 이뤄야

같은 시각디자인도 그 발단은 포스터에서 찾을 수 있고, 또 포스터는 18세기에 서적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서커스 광고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래픽 디자인에서 'graphic'이라는 용어가 '인쇄'라는 용어와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인쇄 디자인 또는 인쇄 매체에만 한정해서 사용되지는 않는다.

M. 맥루안(1911~)의 말대로 사람의 눈이 확대된 것이 책이라면, 책의 확대개념은 분명히 정보일 것이며, 따라서 그래픽 디자인은 일체의 정보를 디자인 하는 분야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그래픽 디자인은 종이인쇄에서 텔레비전 CF·영

은 인쇄매체를 통하여 표현·제작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포스터, 신문·잡지의 광고, 카탈로그, 책 표지, 포장 등의 디자인을 가리킨다. 이러한 기능의 대부분이 광고와 선전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상업 디자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으나, 그래픽 디자인이라 말할 때는 인쇄의 특성을 살린 표현에 중점을 둔다는 방법상의 문제의식이 따른다. 일러스트레이션·사진·레터링, 또는 레이아웃·타이포그래피(typography)등의 영역이 그래픽 디자인의 요소가 되고, 이것이 종합되어 하나의 표현이 이루어진다.

상업 디자인이란 호칭보다 그래픽 디자인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인쇄물 특유의 조형과 호소력에 큰 의의를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것



◆ 세계디자인 엑스포(나고야)에 한국을 대표하여 출품되었던 '한국의 美' 포스터

을 다시 보편적인 시각전달의 문제로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달) 디자인' 또는 '비주얼(시각) 디자인'이란 명칭 아래 추구하려는 동향이 있다.

■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와 중요성

디자인이라는 작업이 순수미술 영역에 머물던 무렵에는 취미적인 도안이나 응용미술이라는 범주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석판인쇄에 의한 다색 인쇄가 발명되고, 19세기 말엽 프랑스에서 세레와 로트레이 특성을 살려서

이란 측면에서도 그래픽 디자인은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여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 등 직능단체의 결성과 국제회의의 참가 및 전시회·연구 세미나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살아 남기 위해서 강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디자인이 갖는 무서운 경쟁력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최근 열린 월드컵을 보자. 디자인 측면에서 바라본 2002월드컵은 결코 일본을 이길 수 없는 안타까운 경기였다. 일본과 공동 주체를 해야만 하는 우리로서는 많은 관광상품에서 현저히



◆ 리오넬 파이닝거, 바우하우스 창립 선언문 표지, 목판화, 1919

꾸미고 만들어가는 단순한 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 디자인 그 자체가 경쟁이며 힘이며 미래다. 우리 한국만의 '이유 있는 디자인'으로 당당하게 세계 속에 독자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디자인 한국'을 꿈꾸며, 한국 그래픽 디자이너의 한 사람으로써 책임감을 느낀다.

추민정·김민경 본지객원기자
(한경대학교 강사)

국내 그래픽업계 전시회개최 등 활발

먼저 '포스터의 시대'를 개척하였으나, 거기에는 여전히 회화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픽 디자인이 독자적인 미학을 가지는 데에는 20세기 초두의 여러 조형운동이 물고 온 새로운 시각을 조직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다. 바우하우스를 통하여 수립된 조형이념은 그 후의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과는 별도로 초현실주의의 수법도 받아들여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바우하우스의 전통을 계승한 순수형태, 합리적인 레이아웃 등으로 유럽이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주류를 차지하였으나 미국의 다채로운 동향도 간과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의 고도 경제 성장 및 산업화 사회로의 지향과 더불어 국내시장은 물론, 국제무역의 경쟁

나타나는 디자인의 질적 격차를 뼈저리게 느낄 수 밖에 없었으며, 각 지하철 역의 한산한 월드컵 관광상품 판매대를 보며 안타까워 해야만 했다.

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 보기 좋게



프린팅코리아 창간

“인쇄문화 산업발전과
대구·경북인쇄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최창근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2동 88-4 전화 : (053)424-0793
팩스 : (053)424-0832 E-mail : tk0793@hanmail.net